

입 재 사

**오늘은 중앙종무기관의 3원장스님,
부서장스님, 그리고 교구본사주지스님
이렇게 종단 최고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1박 2일 연수를 시작하는 날입
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자리가
종단적으로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불교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연수는 종단적으로 의미있고, 중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11월 5일 제33대 총무
원장에 취임하면서 세 가지 종무 기조를
종정 예하께, 그리고 종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수행종풍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조는 여기
계신 교육원장스님, 포교원장스님 등을
비롯해 여러 부서장스님들의 노력과**

**실천, 그리고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흔쾌한 협조와 지원 덕분에 현재
여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종도들의 요구로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 종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
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오직 불조의
혜명을 잇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사부**

대중의 모습 속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발견했고, 동시에 우리 종단이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과제 중 승가 교육 문제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승가교육은 우리 종단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 원장스님과 여러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협력으로 승가교육의 개편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연수교육도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개설된 30개의
강좌에 많은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습
니다. 종단의 승가교육이 큰 변화의
장을 맞이할 것으로 종단 안팎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스님과
여러 교구본사주지스님들께 감사드리
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할 출가종책 문제도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종단에서는 몇 가지 과제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장스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연수에서 여기 계신 교구본사주지스님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교구본사주지스님들께 다양한 지혜를 청해볼까 합니다.

종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어디에 우리들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연수가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수 공간을 통해 종단의 대소사를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10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